

# 招 請 狀

第五十一回 端宗文化祭 全國漢詩白日場 開催案内

謹啓時下 季春之節에 尊體萬安하심을 仰祝하나이다.

就白 忠節의 故場 寧越에서 第五十一回 端宗文化祭의 慶祝一環으로 全國漢詩白日場을 아래와 같이 舉行하오니 江湖諸賢의 많은 參席과 同好知人에게 連絡 주시어 同參을 伏望하는 바입니다.

## - 要 旨 -

1. 日 時 : 2017年 4月 28日(金) 午前 10:30時 開會
2. 場 所 : 觀風軒 境內(寧越邑 中心街)
3. 詩 題 : 懷顧愍忠祠
4. 押 韻 : 宮, 中, 窮, ○, ○. (東字通)
5. 考 選 官 : 斯界 權威者委囑
6. 考選基準 : 詩協準則에 準하며 한글해석 없는 詩 考選除外
7. 作詩磨勘은 13時 까지며, 時間嚴守 바람
8. 施賞은 當日 16時 豫定이며 入賞者가 不參時에는 入賞을 取消함
9. 施賞內容
  - 壯元 1人 : 寧越郡守賞----- 1,000,000원
  - 次上 1人 : " ----- 800,000원
  - 次中 2人 : " (名 60萬)----- 1,200,000원
  - 次下 3人 : " (名 40萬)----- 1,200,000원
  - 參榜 20人 : " (名 20萬)----- 4,000,000원
  - 優作 30人 : " (名 10萬)----- 3,000,000원
  - 獎勵賞 5人 : " (名 7萬)----- 350,000원
  - 計7種 62人-----11,550,000원
10. 參考資料 : 愍忠祠由來記
11. 問議處 : 會長 010-9542-2031, 副會長 010-3199-2181

2017年 3月 8日

主催)寧越文化財團理事長 朴 善 圭

主管)寧越奈城漢詩會長 嚴 相 鎬

後援)寧越文化院長 嚴 泰 成

## 愍忠祠由來記

1457年(世祖3年) 음10월24日 端宗이 변을 당해 昇遐하신 후 侍女從人들이 錦江(東江)絶壁에 投身하여 落花殉節한 곳으로 落花巖이라 하였다.

1742年(英祖18年) 부사 홍성보(洪聖輔)가 집(3칸)과 祭田을 마련하고 戶長에게 奉祠토록하였으며

1746年(英祖22年) 부사 조하망(曹夏望)의 常用祝文을 다시 짓고 한식일과 음10월24일에 行祭하도록 하였다.

이후 每年 음 10월24일에 영모전 제향과 동시에 창절서원에서 2008년까지 奉行하였다.

祭禮를 체계화하여 保存傳承을 위하여 2009년에 端宗祭禮保存會를 創立하여 그 구성원은 영월 창절서원과 영월향교 장의 36명으로 조직되어 奉祀하고 있다.

## 愍忠祠常用祝文 / 曹夏望

維年月日, 行寧越都護府使某, 敢昭告于, 從人侍女之位,  
유년월일 행녕월도호부사모 감소고우 종인시녀지위  
伏以端廟志德, 在周泰伯, 蓁蓁百粵, 事變罔極, 嗟惟絳幘,  
복이단묘지덕 재주태백 진진백월 사변망극 차유강책  
爰暨紅袖, 間關絕峽, 昕夕左右, 仙馭莫追, 奚惜一死, 拚得分明,  
원기홍수 간관절협 혼석좌우 선어막추 해석일사 반득분명  
固自有所, 嵯峨鐵壁, 其水淵淵, 爭赴如歸, 孰後孰先列氣天眇,  
고자유소 차아철벽 기수연연 쟁부여귀 숙후숙선렬기천도  
氛冤嶽訴, 江山不老, 月星永晰, 人情自激, 百世如昨, 是日芬苾,  
분원악소 강산부로 월성영절 인정자격 백세여작 시일분필  
爰有禮式英靈洋洋, 庶幾來格, 謹以, 清酌庶羞, 式陳明薦尚饗  
원유례식영령양양 서기래격 근이 청작서수 식진명천상향

유 연·월·일에 행 영월도호부사 모(某)는 ‘종인·시녀지위(從人侍女之位)께 삼가 밝게 고하나이다.

삼가 생각건대, 단종의 지극한 덕은, 주(周)나라 태백(泰伯)과 같거늘, 초목 무성한 영월 땅에 계시면서 당하신 변고 망극 하여라.

아! 생각건대, 강책(絳幘:종인)과 홍유(紅袖:시녀)들은, 험준한 두메까지 따라와, 조석으로 좌우에서 시중들었지. 선어(仙馭) 하심에 따를 길 없으니, 어찌 한 번 죽는 것 애석해 하리오.

결연히 목숨버리고자 한 것은, 진실로 나름의 까닭이 있어서였네. 깎아지른 절벽 아래, 그 곳 강물 연연(淵淵)하여 깊기만 한데, 마치 내 집으로 돌아가듯 다투어 뛰어내리니, 누가 뒤고 누가 앞이 없어라, 세찬 기상에 하늘도 흐느끼고, 원통한 기운에 산들도 애소하듯 한데, 강산은 변함이 없고, 일월성신은 영원히 그 빛 발하네.

인정은 스스로 격정(激情)하여, 백대가 지나도 마치 어제와 같으니, 오늘 향기로운 제수 마련하고, 이에 법식을 따라 예를 올립니다. 성대한 영령이시여! 임재하시기 바랍니다.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제수를 준비하여 밝게 제를 올리오니, 흠향하소서